

그 사람 지금은

(3) 장형태 前 전남도지사

■ 전라도 역사이야기

-영광 범성포

“5·18 이후 속죄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죠”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지 벌써 26년이 지났다. 당시를 기억하는 대부분의 광주·전남 시도민들도 이제는 그 상처가 아물만 할 정도의 세월이다. 하지만 장형태 당시 전남지사는 아직도 그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80년 5월말 지사를 그만둔 이후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동안 각종 언론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을 시도했지만 그는 정중히 사양했다. 그런 장 전 지사를 지난 7일 어렵게 만났다. 둘째 아들의 회사에서 회장직이라는 명함과 사무실을 받아 소일하고 있었다.



장형태 전 전남도지사가 현직에 있었던 지난 1979년 도 직영 이스콘 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어떤이 얼마남지 않은 나이인데도 정정한 모습이었다. 장 전 지사는 친구들과 답소를 나누다가 찾아온 기자에게 차를 권하며 반갑게 맞았다. 우선 근황이 궁금했다. 장 전 지사는 “지난 81년부터 20여년 동안 해양도시가스 회장으로 일하다가 2001년 그만 두고 3년여 동안은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 사무실을 하나 열어놓고 소일하다가 최근에 둘째 아들 장민기(56)씨의 배터리 제조회사인 IBT에 직을 두고 있다”며 “직책은 회장이지만 경영은 아들과 전문경영인 몫이고 나는 가끔 보고만 받을 뿐 친구들과 놀고 지낸다”고 말했다.

로서 시민에 죄송한 맘을 금치 못해 지사직을 물러났다”며 “지사직을 유지하라고 두 번이나 뒤편에서 당부했지만 끝내 사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공직생활을 그만둔 이후 몇차례 정치적 권유도 있었지만 응하지 않고 일생을 속죄하면서 살고 있다”며 “현저하게 죄가 있다기보다는 나로 인해 될 일이 안된 사람이 있고 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장 전 지사는 이쯤에서 “5·18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쓰지 말 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다 자기 합리화가 될 것이다”며 “나라도 잘했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으로 그만두고 조용히 살고 있다”고 말했다.

‘지사직 유지하라’ 고위층 당부  
“시민들 볼 낫 없다” 끝내 사임

기자가 “매우 밝고 건강해 보인다”고 하자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도수체조(徒手體操 : 맨손체조)를 하고 일주일에 두세번 골프를 치면서 생활하니까 건강에 큰 이상이 없다”며 “무엇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고 답했다.

- 약력**
- ▲1928년생, 광주시 북구 신용동 출생
  - ▲광주사범학교 졸업
  - ▲보통·고등고시 합격
  - ▲전남도 내무국장, 부산시 부시장, 전남도 부지사
  - ▲내무부 재정국장, 전남지사
  - ▲해양도시가스 회장

그는 이에 대해 “내가 계엄군을 불렀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나는 18일 새벽 당시 전남도경 정보과장으로부터 전화로 군이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낮에는 도내 못자리를 둘러보고 다녔다.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갔다. 그날 어머니는 작고했다. 나는 어머니가 나에게 더 이상의 큰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돌아가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을 ‘자효(慈孝·어머님의 자애와 자식의 효도라는 뜻으로,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을 말함)로 받아들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5·18은 군부에서 일으킨 일이지만 도정 책임자

“공직자들에게엔 무엇보다  
검소·겸손의 덕 있어야”

데 하는 생각으로 그만두고 조용히 살고 있다”고 말했다. 장 전 지사는 인터뷰 말미에 “정이수신(靜以修身) 겸이양덕(儉以養德)이라는 말을 인용, 공직에 있는 후배들에게 조언했다. 그는 “이 말은 재갈량이 자식들에게 유연으로 남긴 말”이라며 “조용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으로서 몸과 마음을 닦고 검소와 겸손으로서 덕을 기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이면 회혼(回婚·결혼한지 60년째)이 되는 동갑인 부인 한영순씨와 사이에 4남2녀를 두고 있다. 첫째 아들인 장승우(60)씨가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 장관을 거쳐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으로 있고 둘째 아들인 사업가 민기(56)씨는 IBT 외에 제이텍과 영신장투의 오너다. 또 셋째 환빈(53)씨는 현대 아산 기획본부장, 넷째 두일(46)씨는 현대 캐피탈 이사로 근무 중이다. 사위 두 명도 모두 의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 =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백제가 불교 들여온 문화교역항  
고려때 조운창·군항 겸한 요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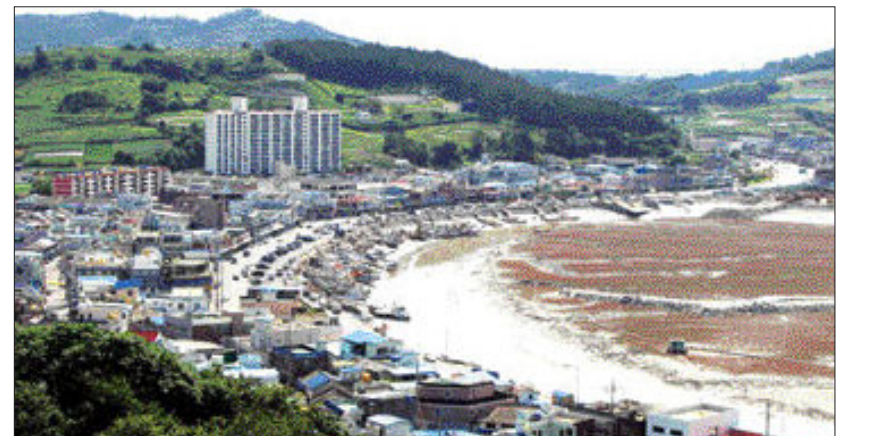
광주에서 영광까지 22번 국도는 4차선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다. 영광읍내에서 범성포 구간은 완공되어, 과란 가을하늘과 더불어 상쾌하다. 독바우사거리에 들어서자 조기상징탑과 온통 굴비 가게들이다.

북쪽 인산과 동쪽 대덕산 기슭에 집들이 촘촘하게 들어서 있고, 맞은편에는 갯골에 닿을 내린 고깃배가 눈에 띈다. 두꺼운 갯벌층 위로 붉은 함초가 덮여있다. 멀리 간척된 곳은 벼가 연록색 물결을 이루고 있다.

고창 고산에서 발원한 시내는 대산·묘량천을 합해 북서류를 하다 와룡리를 지나며 누운여울내(臥龍川)가 된다. 서해 바닷물이 거슬러 올라오기도 한 와룡천은 고법성(古法聖)지와 매항비가 발견된 입암리, 원불교 성지인 길거리, 구수리와 범성포구를 감돌아 칠산바다로 들어간다(29km). 이 하천이 갯벌(干潟地)과 들을 만들었고, 포구를 이뤘다. 부곡이름인 ‘진량(陳良)’에 그 뜻이 담겨있으니 ‘길게 늘어진 굽이 둔개’다.

범성포는 단순한 어항이 아니다. 백제 때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파하려 온 문화교역항, 고려 때부터 국가의 세곡을 모아 경창으로 보낸 조운창,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군항을 겸한 요충지였다.

범성의 옛 이름은 아무포(阿無浦)·부용포(芙蓉浦)로 불교와 연을 맺고 있다. 영광



인인산 범성진성터에서 바라본 범성포구.

과 불갑산도 불법을 들여온 은혜로운 고장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아마타불을 다른 말로 ‘무량광불(無量光佛)’이라고도 하기 때문이다.

범성포에는 992(성종11)년 조창이 설치되고, 1천섬을 심는 초마선 6척이 배치된다. 1512(중종7)년에는 영산창의 기능까지 맡아 27개 고을의 세곡을 집산했다. 두 해 뒤에는 수군만호진이 설치되고, 1708년에는 첨사(添3품)진으로 승격되고, 1789년에는 수군첨절제사가 배치됐다. 당시 둘레 1천688척 높이 12척의 진성(鎭城)과 871호 2천495명이 살고 있어 영광읍보다 큰 동네였다.

1895년 폐진 직전 병선 8척 외에 조운선 21척, 수군 300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동헌자리는 진내리 205번지로 5칸이었으며, 뒤쪽에 아사 10칸 집, 성안 서쪽 객사터 밑에 제물정, 3개 문루, 동조정, 군기고, 작물고 등 관아건물이 즐비했다.

400년을 이어온 서해안 최대 단오절 행사 마당인 인인산 숲정이에 오른다. 범성리에서 부용교를 거쳐 진내리 능선을 따라 느티나무 127그루, 개어서나무 11그루, 팽나무 3주가 장관이다. 북하늪바람을 갈무리하기 위해 조성한 인공림으로 지금은 주민들의 주요 쉼터이다. 최근 와우정 서편 좌우두에 불교 최초 도래지장도 1만3천평 규모로 꾸며졌다.

굴비특산물사업단 허광석 상무를 만났다. 해마다 400여개 업체에서 3천억원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는데 거의 명절에 팔린다. 곧 추석이 다가온다. 고려 때 이자겸이 “비굴하게 굴하지 않겠다”고 임금을 울려 ‘굴비(屈非)’가 유래했듯이 범성포에서는 비굴하지 않게 진짜 조기(曹機·助氣)만 거래된다면 더 기운 난 석수어(石首魚)대접을 받아 영광이었다.

/김경수 (사향도문화진흥원장)

제주도 관광(주) 제주무궁화관광

2006년 제주관광의 새 기념특일

2박 3일 제주도 - 제주 크루즈여행 "북카투어" **대박**

**제주여행 74,000원**

1박 2일 제주도 - 제주 크루즈여행 44,000원

1박 4일 제주도 - 제주 크루즈여행 104,000원

문의: 064-744-1109

SONY

DSLR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올해 가장 사랑받는 렌즈  
전용의 카메라

가볍고 소리가  
더욱 정밀한 렌즈기술을 만나  
아름답게 선보라

α

대우구인 및 판매 | 소니 광주지사문의전화 062)323-3000  
소니 공식 서비스센터 062)314-3000